

THE CHURCH IN TORONTO

열 두 광주리 가득히 아침부흥 제 19 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의 삼대 원칙

2008년 5월 26일 ~ 6월 7일

제 1 부: 성경 말씀과 찬송

찬송: 234, 356, -, 650 (영 296, 475, 463, 907)

성경: 로마서 3:21-31; 4:1-25; 5:1-11; 6:1-23; 7:1-25; 8:1-39; 12:1-14

제 2 부: 계시와 진리를 위한 아침부흥

제 19 주 :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의 삼대 원칙

☞ ☞ ☞ ☞ ☞ 월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로마서 16:25-26

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취었다가

26.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소개

로마서 12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서신서의 앞 여덟개 장에서의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자.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예시적이거나 첨가된 것들이라고 알고 있을 것이며, 그것들은 괄호 안에 두고 12장이 8장에 이후에 바로 이어져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 장들이 단지 인용된 것이고 8장에서 12장으로 바로 연결되었다면 직접적인 연결을 볼 수 있다.

로마서의 처음 여덟 장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두 가지 유형을 다루고 있다. 처음 네 개의 장과 다섯번째 장의 열에서 열한 절이 한 부분이고 다섯번째 장의 열두번째 절에서부터 8장의 끝 부분까지가 또 한 부분이다. 이 두 부분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되었는가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이어 헌신으로의 권장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몸을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 뒤따른다. 이것은 12장의 첫부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다뤄진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도 안에 있는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그것을 실현하도록 기쁨부음 받았다. 이것은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 불리우며, 여러 세대동안 감취어져 왔으며 오직 이 세대에 알려지게 하였

다(롬 16:25-26). 따라서 구원에 관한 우리의 관념과 하나님의 계획,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성령에 관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영적 체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등의 차이를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 ☞ ☞ ☞ ☞ **화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로마서 6:3-5**

- 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 **고린도후서 5:14-15**

-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 15.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하나님의 전적인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 중심을 두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음**

십자가는 하나님의 중심되고 가장 중요한 역사로 믿고 있다. 이것이 진리인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나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십자가는 그 자체에 있어서 마지막이 아니다. 신성한 방법이 십자가이지만 신성한 끝은 몸이다.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한 방법으로 알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당신 자신이 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생활 가운데 십자가가 매우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행하였을 때, 당신 자신이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 당신이 그 안에 없다면, 십자가는 그 역사가 행해지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역사를 끝내지 못했음이 확실하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제 개인적인 거룩함은, 즉 많은 믿는 이들이 강조하고 구한 것처럼, 매우 값지다. 생활 가운데에서의 승리는 진정 값진 것이다. 구원은 진실로 값지다.

구원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라! 죄 사함을 받고, 그분 앞에서 의롭게 되고, 죄의 능력으로부터 옮겨진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를 구원하여, 생활 가운데에서 옮겨지고 승리한 것과 같은 영적 체험과, 개인적인 거룩함 등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수백 수천 그리고 무수한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 위에 흠어진 모든 독립적인 개체가 되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단일 개체들이 될 것을 뜻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이것을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모른다. 그것은 매우 말하기 쉽다. 내가 한번 말했을 것이다. 나는 진리에 속한 것을 보지 못한채 몸의 교리를 알았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그 교리를 적용하려고 했던 수년 동안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을 매우 부끄러워하고 있다. 런던에 대한 안내책자를 읽는 것으로 런던을 절대로 방문한 것을 대신 할 수 없다. 요리 책을 아는 것이 부엌에 있었던 것을 결코 대신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몸의 교리를 아는 것이 몸을 보는 것을 절대로 대신 할 수 없다.

오늘날 전체적인 문제는 이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너무도 많은 사람들과 개개인별로 생각한다. 구원을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거룩함에 대하여 개개인별로 생각한다. 승리와 옮겨지는 것에 대하여 개개인별로 생각한다. 우리의 양떼가 주님과 함께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바로선 사람과 의로운 생활과 죄의 능력에서 옮겨지는 것에 대하여 알게 된다면 그리스도 일꾼들으로써 우리는 매우 기뻐한다. 그러나 그것은 몸이 아니다. 어느날 어떤 것이 와서는 그날이 당신에게 가장 축복된 날-멋진 날이 된다. 주님은 당신의 눈을 열어 구원이 몸에 관한 항목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영의 능력을 갖는 것이 몸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하신다. 신성한 생각이 한 사람-작은 사람들의 주인이 아닌-이라는 것을 본다. 그것은 한 사람이다. 주 예수 그분 자신과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을 이룬다. 하나님의 전체 생각은 그리스도 안을 중심삼고 있으며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 이것은 머리에 관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몸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죄인들이 구원받았음을 주께 찬양하라. 한 개인으로 시작했지만 몸의 지체로 마쳐야만 한다. 이것은 신성한 생각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향하여 역사하고 계시며, 그 이하로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실 것이다. 십자가는 그것-단체적인 몸, 단체

적인 그리스도—을 위한 것이다. 새 사람은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합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분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 ☞ ☞ ☞ ☞ **수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고린도전서 10:16하-17**

- 16. ...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 17.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 **로마서 12:5**

- 5. ...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에 만족하지 않으심**

여러분은 내가 중국 출신이라는 것을 안다. 나는 마을에서 설교하고, 적은 수의 성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간단한 예를 사용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한번은 한 마을에서 믿는이들의 어떤 작은 집회에 참석하였다. 나는 몸의 하나에 대한 것,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한 몸인 것을 그들에게 말하러 하였다. 나는 그것이 그들에게 매우 이해하기 힘든 것임을 발견했다. 새로 태어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 니고데모의 생각 밖이라면, 한 몸에 대한 의문은 모두가 어떤 중국인의 생각 밖의 일이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우리는 하나가 아니다. 우리는 개개인들이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나는 그것에 대하여 많이 기도하였다. ‘주여,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인지 보여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내게 주셔야만 합니다.’

한 주일 아침에 우리는 떡을 떼고 있었다. 나는, ‘형제들, 우리가 떡을 떼기 전에 여러분이 이 떡을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내가 의미하는 것을 몰랐지만, 그러나 그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떡을 떼 후에, 나는 고린도 전서 10장 17절을 폈다. ‘우리가 많으나 한 떡인 것처럼.’ 그리고 말을 이었다. ‘우리가 한 덩어리인가? 그 덩어리는 하나이다. 적어도 그것은 하나였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하나인가? 그것은 여전히 하나인데, 다만 하나가 여러 다른 하나들로 흩어져 있다. 만약 그것을 모두 함께 모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한 덩어리로부터 생겼기 때문이다. 그것이 두 덩어리였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을 무수히 쪼갤 수 있지만, 여전히 그것은 한 덩어리이다. 그것은 하나였기 때문에 한 덩어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떡을 하나로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당신 안에 계신 주 예수에 관한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절대 나뉘지 않았다. 그것은 절대로 부숩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의 기본이다. 그것은 여러분이 한 주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한 주께 참여하고 있으며, 그 주께서는 절대로 쪼개질 수 없으시다. 그분은 오늘날 여전이 그 영이시다(고후 3:17). 떡을 쪼갤 수는 있지만, 주님을 쪼갤 수는 없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이다.' 주님을 찬양하라. 빛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밝혀졌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단순히 개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것에 만족하지 않으시다. 우리가 주를 믿고 그분께 참여할 때, 그것은 무엇인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한 몸의 지체로 만들어졌고, 그 몸은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개인적인 것도 만족하지 않으신다.

이제 우리는 실질적인 측면에 왔다. 하나님은 우선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야 하며,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추구하시는 것을 본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소위 말하는 영적 체험들을 나 자신을 위하여 추구하는가? 나의 사회를 위하여, 나의 종파를 위하여 개종자들을 찾고 있는가? 개종자들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되어서 천당을 누릴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늘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이상을 보았고 그것을 향하여 일하고 있는가? 오, 그것은 어려운 것이다. 모든 것들이 변한다. 심지어 죄로부터 옮겨지는 것, 성화에 관한, 승리에 관한 질문조차도 변한다. 모든 것이 다른 관점을 나타내 보인다. 나는 전체의 한 부분이 된다.

그것은 단순히 몸에 관한 교리의 문제가 아니다. 로마에서조차도 바티칸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몸이 하나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한 교회를 믿는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머리를 갖고 있다. 그것이 문제이다. 그들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 그것을 하나의 원칙으로서 단순히 실행할 수 없다. 단순히 취하려고 시도할 수 없다. 그것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일단 보이면 그러면 그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 ☞ ☞ ☞ ☞ 목요일 ㄹ ㄹ ㄹ ㄹ ㄹ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히브리서 5:9

9.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 로마서 12:3-4

- 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 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의 삼대 원칙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고, 이 지체들은 함께 연합되어 있으며, 각각은 몇 가지들의 기능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롬 12:4). 그러면 어떻게 이런 다른 기능들을 가진 지체들이 연결되며 한 몸 안에서 조화롭게 함께 결합되는가? 그리스도의 몸의 조화로운 기능 발휘를 위한 필수적인 기본 원칙들이 있다. 첫째는 머리와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의이며, 둘째는 몸과 나 사이의 관계이며, 셋째는 지체인 나의 위치이다. 이 세 가지 모두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1. 머리(그리스도)와 나 자신 사이의 관계 - 순종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행복의 의미는 말씀에 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할 것이다. 나는 나의 자유를 포기할 것이며 권위에 불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생활의 첫번째 원칙은 머리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몸의 존재와 이 몸의 기능과 활동은 권위에 좌우된다. 어떤 경우든 권위가 우리 안에 자리하지 않으면 몸은 마비된다. 불순종하는 어떤 부분이든지 마비된다. 마비된 몸은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곳에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생명을 갖기 원하는데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생명이 가득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권위에 순종하고 있다. 나의 손에 생명이 있다면 나의 머리로부터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살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생활의 첫번째 원칙은 머리에 순종하는 것이다. 만약 순종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아직 다름을 받지 못했다면, 당신이 알고 있는 몸에 관한 것은 실재가 아닌 이론에 지나지 않게 된다. 하나님께서 머리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보도록 당신의 육신과 피의 생명을 처리하셔야 한다. 우리는 순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선하게 전진하고 거룩하게되고 의

롭게 되기를 바라는 한편 여전히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

☞ ☞ ☞ ☞ ☞ **금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고린도전서 12:12-14, 18, 24下-27**

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4.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18.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24. ...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시라
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26.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니라
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의 삼대 원칙 (계속)

2. 몸(교회)과 나 자신 사이의 관계 - 교통

머리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이며, 몸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교통의 관계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교통이 실제적이고 필연적인 문제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은 교통을 필요로 하며 교통이 없다면 침체하게 된다. 교통은 몸의 다른 지체로부터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내가 입이고, 나는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보기 위하여 눈의 교통이 필요하다. 또한 걷기 위한 발의 교통도 필요하다. 따라서, 교통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역할을 받는 것이다. 나는 다른 지체들이 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유익을 얻는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통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원하며, 그들 혼자만 기도하며, 모든 것을 혼자하고, 입과 귀와 손과 발이 동시에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교통을 필요로 한다. 교통은 내가 한계가 있으며 다른 지체로부터 오는 것을 기꺼이 받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은 단지 교리가 아니라 실제이다. 일년 삼백 육십 오일 가운데 매일 기도를 잘 할 수 없다. 매일 성경 공부를 잘 할 수 없다. 때로는 건강이 나빠져

서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하여 기도를 하지 못하고 성경을 자주 읽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경험히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다. 일주일 이내로 나는 하나님과 월요일에 교통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당히 일을 잘 한다. 그리고 토요일에 나는 피로를 느끼고 성경을 읽지 못하거나 기도를 잘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나는 토요일에 실패할 운명이 아니다. 나를 받쳐주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몸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공급이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두번이 아니라 여러번 한다. 비록 우리 자신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통과하도록 하신다.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몸의 지체들이 상호 필요를 서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모든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롭게 되소서’라고 기도한다. 몸의 다른 지체로부터 나오는 생명이 당신에게 흐르기 때문에 당신은 유지된다. 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 당신에게로 흘러가서 당신을 버티게 한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통하여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 ☞ ☞ ☞ **토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로마서 12:1-2**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 **고린도전서 14:26**

26. ...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의 삼대 원칙 (계속)

3. 몸 안의 지체로서 나의 위치 - 봉사

만약 몸의 생명이 교통하기 좋아하고 상호 공급하는 것을 본다면 이 생명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는 자가 되를 원할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더 많은 지체들이 생명의 공급을 필요로 하는데 그와 같

은 공급을 할 수 있는 지체가 거의 없다면 몸의 능력은 상실될 것이다. 그것은 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하는 까닭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다른 지체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것을 의도하고 계신다. 따라서 그들이 생명의 능력을 필요로 할 때 그와 같은 공급이 다가 올 것이다.

고린도 전서 12장 26절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 않고 있으며,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기뻐‘해야 한다’고 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모든 지체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을 때 모든 지체들이 그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이것이 당신이 왜 뚜렷한 이유도 없이 기분이 매우 좋은 때가 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다. 다른 때에는 당신이 매우 힘들게 느낀다. 여기에는 한 몸의 지체들의 고통하기 좋아하는 느낌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웨일스에서 거대한 영적 부흥 시대에 다른 지역에 사는 한 자매가 있었다. 어느날 그녀가 다른 두 셋의 자매들과 기도하고 있을 때, 그녀에게 전에는 해보지 못한 경험인 엄청난 영적 능력의 넘침을 체험하였다. 그것은 사오 개월간 지속되었다. 그녀는 마치 천국이 그녀의 손이 닿을 곳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접촉하는데 아무런 노력도 필요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그녀는 신문을 읽다가 그녀에게 이 생명 능력을 공급한 것이 웨일시(Welsh) 영적 부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지체가 기뻐할 때 다른 지체들도 함께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유기적인 생명을 가진 살아 있는 몸이다.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4)라 하고 있다.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

이것은 고통이나 기쁨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다. 어떤 지체들은 생명 능력으로 몸을 공급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지체들은 몸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다. 우리는 양면을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몸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진실로 필요로 하며, 또한 몸에 생명을 공급하여야 한다. 고통을 통하여 몸으로부터 생명을 공급 받으며 다른 지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도 한다. 몸인 교회에 관하여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교리나 가르침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의 지체로써 함께 연결되었다는 것은 엄

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지체들로부터 기꺼이 도움을 받아야 하며, 또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돕기를 힘써야 한다.

결론으로, 우리는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여야 하며, 몸의 생명을 누리며, 동시에 다른 지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에 있어서 세가지 중요한 원칙들이다.

◆ 추구 자료 ◆

(주) 인용된 글은 워치만 니의 「열두 광주의 기록」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강조를 위하여 붉은 글자나 밑줄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제 3 부: GTA 권속 교통

1. 기도의 부담

1. Gr. 6의 복음 집회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이 집회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십시오.
2. 중국어 4 주 온전케하는 훈련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십시오.

2. 소식 및 안내

기타 안내

- a. 주일집회 메시지 비디오: www.churchintoronto.org에서 매 주일 집회 메시지 비디오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집회 시간 및 집회소 안내】

Lord's Table	All Halls	Sunday, 10:00 AM	Sheppard Hall	671 Sheppard Ave. E., Toronto, ON M2K 1B6 (416) 221-7610
Young People	Sheppard	Saturday, 7:30 PM	Cecil Hall	24 Cecil St., Toronto, ON M5T 1N2 (416) 977-5588
College	Cecil	Friday, 7:30 PM	Gretna Hall	7 Gretna Ave., Toronto, ON M4A 2H5 (416) 757-7117
Grade 6	Gretna	Saturday, 7:00 PM	자매집회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한국어 자매 집회)
Prayer Meeting	Sheppard/Gretna	Tuesday, 7:30 PM	소그룹1	매주 수요일, 오후 6:00시 (한국어 가정 소그룹1)
	Cecil	Tuesday, 7:00 PM	소그룹2	매주 목요일, 오후 6:00시 (한국어 가정 소그룹2)
Web Page	www.churchintoronto.org		Web Page2	www.thechurchintoronto.ca

(이 아침부흥지는 영어 아침 부흥지를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 및 한글 아침 부흥지는 www.thechurchintoronto.ca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